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3, 277 - 293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 경 민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음주 동기에 영향을 주고, 이 음주 동기가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때 스트레스와 음주 동기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여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16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중다 회귀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원 가운데 이성, 장래,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음주 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음주 동기들 가운데 대처와 일치 음주 동기는 음주빈도를, 사회적 음주동기와 고양 음주동기는 음주량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예언변인이 있다. 스트레스, 음주동기, 음주행동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음주동기에서 음주행동으로 가는 경로만 유의하였다. 또한 음주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주동기의 상호작용효과, 음주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은 음주동기이고 스트레스원에 따라서 특정한 음주동기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데 조절(중재)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주, 음주행동, 음주동기,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rmk92@chol.com

음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알코올은 사회적인 관계를 촉진시키고 향상시키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긴장을 감소시키며,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분을 바꾸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 스트레스 상황이 음주를 일으키고, 술을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음주는 신체적인 질환이나 공격성을 유도하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Wilson(1988)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도 없는 사회적 음주자와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회적, 의료적, 법적 문제를 경험한 문제 음주자들이 모두가 알코올의 스트레스-감소 특징을 믿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허용적이어서 2000년에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 중 82.9%의 남성과 43.7%의 여성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음주 비율이 성인보다 높고 절반 이상은 매주 한 차례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음주가 심리적 폐해를 가져오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레스와 음주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스트레스와 음주 문제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Cox & Klinger, 1988). 또한, 다양하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 및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하나의 대처 방법으로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또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음주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다른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로써의 음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음주가 부적절한 정서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지를 검증했다. Critchlow(1986)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이 자신들의 고통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게 되며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술을 소비한다고 제안했다.

Conger(1966)는 긴장-감소 가설을 통해서, 알코올은 갈등과 관련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강화되는 긴장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했다. 즉,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는 개인들이 이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Cooper, Russell, Skinner 및 Windle(1992)은 특히 남성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반응으로써 알코올로 주의를 더 많이 돌린다고 예측했다.

여자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Carney, Tennen, Affleck 및 O'Neil (2000)은

알코올 소비가 매일 일어나는 부적이고 정적인 경험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사용하여, 83명의 음주자들에 대하여, 매일 일어나는 정적이고 부적인 경험과 스트레스의 지각, 음주 욕구, 알코올 소비간틀 60일 동안 조사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들은 직무와 관련없이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한 날에 실제 음주 욕구가 높았고, 음주량도 더 높았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한 날에 개인들은 더 높은 음주 욕구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일기기록 방법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국내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알코올 소비가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특히, 이민규(1993)는 음주의 예언 변인으로서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했고, 이유리(1997)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이 정서적인 불쾌감을 증가시키거나, 지각된 통제감을 저하시켜서 알코올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검증했다. 그러나, 한소영(200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나 정서관련 변인들이 음주양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사회 학습적인 요인이 음주양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 가운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 사회적 지지는 또한 환경적 스트레스원의 다양한 심리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 자원으로써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Cohen & Syme, 1985; Duck & Silver, 1990). 지각된 지지가 높은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는 개인들보다 환경적 스트레스원에 더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결과로부터 개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고통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거나 조절해 주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들이 기술되어 왔다(Vaux, 1988).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인 이익은 스트레스원의 주관적인 평가, 대처 전략의 선택, 자기-존중감, 개인적인 통제 효과로부터 나온다(Cohen & McKay, 1984; Gore, 1981; Lieberman, 1982; 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 Thoits, 1986). 비록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을 상술하여 검증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Barrera, 1986; Rook & Dooley, 1985; Shinn, Lehmann, & Wong, 1984). 이전에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과정이 스트레스원의 영향을 완충한다는 완충가설을 검증했다. 이런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대처 자원으로 개념화되었다. 게다가, 이 자원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의 양이나 형태와는 별개이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원과 독립적이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원에 선행한다고 가정된다. 이런 완충 가설과는 달리 Lepore, Evans 그리고 Schneider (1991)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간에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와 대안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완충 모형과는 반대로, 이 접근은 특정한 스트레스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동적인, 내생적 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했다(Barrera, 1986; Gore, 1985; 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Rook & Dooley, 1985; Shinn, 1984; Vaux, 1988, 1990; Wheaton, 1985).

Wills와 Cleary(1996)는 부모의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지지가 청소년의 물질 사용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했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위험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물질 사용과 역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하에서 개인들의 대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Lazarus & Folkman, 1984; Thorit, 1986).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처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주 동기(drinking motive).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술을 마시는 동기가 음주량과 음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주 문제 등의 음주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음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을 개발해왔다(신행우, 1998; Cooper, 1994; Cooper et al., 1995; Cooper et al., 1992).

처음 음주 동기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동기와 사회적 동기의 2가지 음주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Farbor, Khavari, & Douglass, 1980). Wills와

Shiffman(1985)도 개인들이 정적이고 부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들이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거나 불안하거나 과대 각성될 때의 부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또한, Bradizza, Reifman 및 Barnes (1997)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동기와 대처 동기를 구분하고 있다. 그들의 구분에 따르면, 음주의 사회적 동기는 사교적인 활동, 축제 등을 흥겹게 하고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고, 대처 동기는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정서 상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이런 2가지 음주 동기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 연구들을 확장시켜, Cooper 등(1992)은 음주 동기의 3요인 모형을 만들었다.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사건이나 축하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사회적 동기), 부적인 정서를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고(대처 동기),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양 동기)는 것이다. 또 Stewart와 Zeitlin(1995)도 개인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3가지로 분리하여 3차원 음주 동기 질문지를 개발했다: 대처동기(CM: 부적인 정서 상태를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 사회적 동기(SM: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기 위한 동기); 고양동기(EM: 정적인 정서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 특히 이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Cooper 등(1992)의 연구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여 젊은 성인, 즉 대학생들로 연구 참여자들을 확장시켰다. 더 나아가, Cooper(1994)는 Cox와 Klinger (1988)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음주 동기의 4요인 모형을 제시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덧붙여, 음주 행동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음

주 동기로 일치 동기(conformity motive)를 검증했다. 이 일치 동기란, 사회적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과 부적으로 연합되는 것으로, 음주에 대한 내적인 동기가 일반적으로 약하고, 외부적인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만 거의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음주 소비의 전반적인 유형과 일치 동기와의 관련성은 약했다.

국내에서는 신행우(1998)가 Cox와 Klinger(1988)의 4요인 모형을 근거로 음주 동기 문항을 개발하여, 확인적인 요인 분석을 통해 대처, 사회적, 고양, 동조의 4요인 모형을 검증했다. 또한, 김용석(200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의 대처 동기와 음주 행위간의 관계, 성별에 따른 대처 동기와 음주 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주의 대처 동기가 음주 빈도, 음주량, 음주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특히 음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나타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학생들보다 음주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생활 사건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탁진국, 2000).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2001)은 알코올 사용과 사용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을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인과 심리적, 인구 통계적 취약성 요인으로 나누었고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 변인을 추출하고자 했다: 성격(외향성, 새로운 경험 추구, 불안, 적대감); 주변인의 영향(가족, 친구); 음주 동기(고양, 대처, 사교). 이 연

구의 결과, 음주 동기가 알코올 사용과 음주 문제를 가장 잘 예측하고, 그 다음으로 성격, 주변인의 영향이 알코올 사용과 음주 문제를 예측한다고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음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을 기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은 문제 음주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밝히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이런 위험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쳤다. 또한 스트레스와 음주 동기간의 관련성을 밝힌 대부분의 연구들도 그런 관련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소비의 증대와 음주 관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음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의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를 통해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1)지각된 스트레스에 따른 음주동기,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대해 알아보고, 2)음주 동기에 따른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3)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음주동기가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고, 4)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음주동기가 매개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그림1). 5) 중재모형으로 음주 동기에 대한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고(그림 2의 가), 음주행동에 대한 음주 동기×사회적지지 상호작용효과(그림 2의 나), 그리고 스트레스×음주동기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물음에 대해 얻어진 답은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 중재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

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도구

방법

(1) 생활 스트레스 척도

참가자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정판을 사용했다. 이 문항은 총 50개의 문항으로, 경제문제(7문항, Cronbach α =.75), 이성문제(6문항, Cronbach α =.78), 교수 관련 문제(6문항, Cronbach α =.78), 가족과의 관계(6문항, Cronbach α =.76), 장래문제(7문항, Cronbach α =.75), 가치관 문제(5문항, Cronbach α =.73), 학업 문제(7문항, Cronbach α =.72), 친구와의 관계(5문항, Cronbach α =.77) 등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문항을 경험빈도와 중요도로 나누어, '전혀(0)'에서 '매우(3)'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경험빈도×중요도 값을 '지각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대학생이었다. 350개의 설문지를 실시하여 회수된 330부 중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316(남=98, 여=192, 성 기입하지 않음=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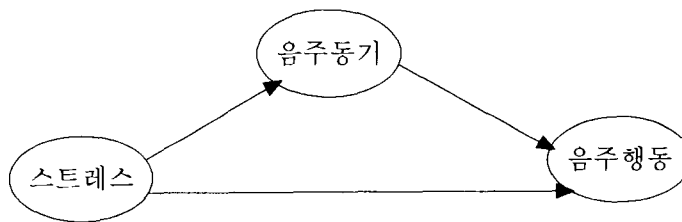


그림 1.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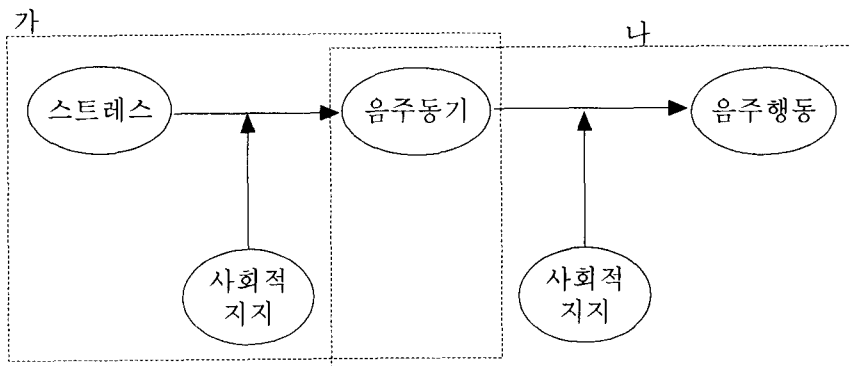


그림 2.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중재 모형

스트레스 값'으로 산출했다.

(2) 지각된 스트레스 질문지(PSQ)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PSQ는 Levenstein, Prantera, Varvo, Scribano 및 Betre(1993)가 개발하였고,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금선 등(2003)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83$ 으로 나타났다.

(3) 음주 동기 척도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Cooper(1994)의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사회적 음주동기(Cronbach $\alpha = .85$), 대처 음주동기(Cronbach $\alpha = .89$), 고양 음주 동기(Cronbach $\alpha = .83$), 일치 음주 동기(Cronbach $\alpha = .75$)였다.

(4) 지각된 사회적 지지

Macdonald(1998)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했다. 이 척도는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척도는 가족-정서적 지지(Cronbach $\alpha = .86$), 가족-평가적 지지(Cronbach $\alpha = .81$), 가족-정보적지지(Cronbach $\alpha = .90$), 가족-도구적 지지(Cronbach $\alpha = .87$)으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와, 친구-정서 지지(Cronbach

$\alpha = .89$), 친구-평가적 지지(Cronbach $\alpha = .80$), 친구-정보적 지지(Cronbach $\alpha = .90$), 친구-도구적 지지(Cronbach $\alpha = .87$)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8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1점)'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5) 한국형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NAST)

대학생들의 음주 수준이 높아져, 알코올 중독 수준에 포함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김경빈 등(1991)이 제작한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NAST)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가 4개이상, 또는 가중치 적용 점수 11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6)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AUDIT)

이 검사는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1992년에 Baber, Fuente, Saunders 및 Grant가 제작했다. 이 검사는 알코올 사용의 빈도와 양을 측정하고, 위험한 알코올 사용(3문항), 알코올 의존 증후군(3문항), 유해한 알코올 사용(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한 알코올 사용자들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위의 NAST, AUDIT등은 알코올 중독자와 의존자를 제외하기 위한 준거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준거에 해당하는 알코올 중독과 의존의 참여자는 없었다.

(7) 음주행동

음주 행동은 음주 빈도와 음주량으로 측정하

였다. 음주 빈도는 자기 보고식으로 ‘전혀 안마신다(0)’부터 ‘일주일에 4회 이상(6)’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주량은 ‘맥주 500cc 또는 소주 2잔(1)’부터 ‘맥주 4000cc 또는 소주 2병 이상(5)’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47.2%)였으며, 32.9%가 맥주 1800cc(또는 소주 1병)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원에 따른 음주 동기, 음주빈도 및 음주량

결과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물음의 순서대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192명(60.8%), 남학생이 98명(31%)이었다. 한달에 2~4회 술을 마신다고 보고한 대학생은 149명

생활사건 스트레스원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음주동기를 예측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이성과의 문제와 장래 문제가 대처 음주 동기에 유의한 예측요인이고, 이성과의 문제와 친구관련 문제가 고양 음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스트레스원으로 음주 빈도와 음주 소비량을 예측한 결과표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이성 스트레스와 장래 스트레스가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성과의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표 1. 스트레스원으로 음주 동기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결과

스트레스원	음주 동기															
	사회적 음주동기				대처 음주동기				고양 음주동기				일치 음주동기			
	B	β	t	p	B	β	t	p	B	β	t	p	B	β	t	p
경제	-.01	-.03	-.50	.62	.00	.01	.11	.92	.04	.10	1.42	.16	.04	.12	1.60	.07
이성	-.03	.06	.96	.34	.12	.20	3.27	.00*	.09	.15	2.47	.01*	.03	.06	1.05	.30
교수	.05	.11	1.67	.10	.01	.04	.58	.57	.01	.02	.27	.78	.03	.09	1.39	.17
가족	-.01	-.01	-.17	.87	.07	.12	1.76	.08	.00	.01	.10	.92	-.02	-.05	-.73	.46
장래	.02	.07	.95	.34	.04	.14	1.94	.05*	.01	.02	.25	.80	-.01	-.07	-.95	.34
가치관	-.02	.07	.91	.37	.01	.02	.31	.75	.03	.08	1.14	.25	.02	.08	1.04	.30
학업	-.01	-.02	-.29	.77	-.03	-.09	-1.25	.22	-.05	-.13	-1.69	.09	-.01	-.02	-.25	.81
친구	-.17	-.15	-2.26	.02	-.07	-.06	-1.00	.32	-.23	-.20	-3.03	.00*	.06	.07	1.10	.28
	$R^2 = .038$ ($AdjR^2 = .01$) $F(8, 276) = 1.37$ $p = .208$				$R^2 = .082$ ($AdjR^2 = .05$) $F(8, 276) = 3.07$ $p = .002$				$R^2 = .064$ ($AdjR^2 = .04$) $F(8, 277) = 2.37$ $p = .018$				$R^2 = .052$ ($AdjR^2 = .02$) $F(8, 277) = 1.90$ $p = .060$			

* $p < .05$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음주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많아도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장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주 동기에 따른 음주빈도 및 음주량

음주 빈도와 음주 소비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음주 동기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살펴보면, 음주 동기 중 대처 음주 동기와 일치 음주 동기가 음주의 빈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음주 동기와 고양 음주

표 2 스트레스에 따른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스트레스	음주 빈도				음주량			
	B	β	t	p	B	β	t	p
경제 스트레스	-.01	-.14	-2.13	.03	.00	.01	.21	.83
이성 스트레스	.02	.19	3.31	.00*	.02	.14	2.41	.01
교수 스트레스	.00	.01	.23	.81	.00	.03	.48	.62
가족 스트레스	.00	.02	.37	.70	-.01	-.09	-1.38	.16
장래 스트레스	-.01	-.21	-2.87	.00*	.00	-.03	-.42	.67
가치관 스트레스	.01	.11	1.62	.10	.01	.09	1.23	.22
학업 스트레스	.00	.03	.46	.64	.00	-.03	-.39	.61
친구 스트레스	-.02	-.08	-1.24	.21	-.03	-.10	-1.58	.11
$R^2 = .090$ ($AdjR^2 = .064$) $F(8, 277) = 3.437$ $p = .001$				$R^2 = .038$ ($AdjR^2 = .010$) $F(8, 274) = 1.368$ $p = .210$				

* $p < .05$

표 3 음주 동기에 따른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음주 동기	음주 빈도				음주량			
	B	β	t	p	B	β	t	p
사회적 음주동기	.02	.10	1.75	.08	.04	.17	2.82	.01*
대처 음주동기	.05	.26	3.87	.00*	.02	.09	1.56	.12
고양 음주동기	-.01	-.07	-1.20	.23	.06	.25	3.60	.00*
일치 음주동기	.05	.22	3.71	.00*	-.02	-.09	-1.52	.13
$R^2 = .189$ ($Adj R^2 = .178$) $F(4, 309) = 17.965$ $p = .000$				$R^2 = .142$ ($Adj R^2 = .131$) $F(4, 306) = 12.659$ $p = .000$				

* $p < .05$

동기가 음주 소비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적인 정서를 줄이거나 친구들과 일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모임을 더 즐겁게 하거나, 정적인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음주동기에 따른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음주동기가 음주빈도와 음주

량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세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원 가운데 음주동기와 음주행동을 예측하는데 기여한 스트레스원 3개를 선정하였고, 음주동기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각각 유하게 예측한 동기군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설명하는데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음주동기였다.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모형 검증.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매개모형을 검증 하였다(그림 3). 이 모형은 스트레스와 음주 행동을 음주동기가 매개하는 지를 알아

표 4. 음주 동기,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따른 음주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음주빈도				음주량			
	B	β	t	p	B	β	t	p
음주동기(대처+일치)	.03	.25	4.10	.00*				
음주동기(사회+고양)					.04	.31	5.35	.00*
사회적 지지	.00	.07	1.30	.19	-.00	-.04	-.81	.41
스트레스(이성+장래+친구)	-.00	-.10	-1.73	.08	.00	.00	.14	.88
	$R^2=.065$ (Adj $R^2=.055$)				$R^2=.099$ (Adj $R^2=.089$)			
	$F(3,265)=6.190$				$F(3,262)=9.602$			
	$p=.000$				$p=.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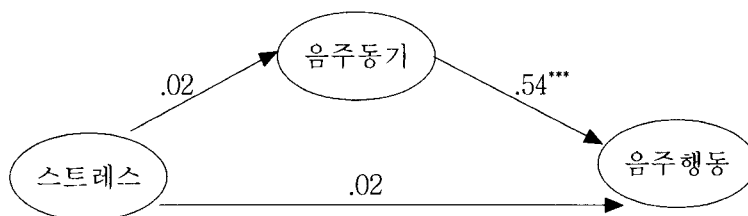


그림 3.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매개 모형 검증 결과

*** $p < .001$

보는 모형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비교적 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75.431$, $df=24$, $GFI=.950$, $AGFI=.907$, $NFI=.825$, $TLI=.804$, $CFI=.870$, $RMSEA=.086$). 그러나 경로계수를 보면 스트레스가 음주 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는 음주 행동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동기만 음주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따른 음주 행동.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두 가지 음주 동기인 대처 음주 동기, 고양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위계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위계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처하기 위한 음주 동기, 고양되기 위한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은 알코올 소비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음주 빈도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즉, 대처하기 위한 음주 동기와 고양되기 위한 음주 동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처하기 위한 음주 동기, 고양되기 위한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은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즉, 대처하기 위한 음주 동기와 고양되기 위한 음주 동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트레스와 음주 동기의 상호작용에 따른 음주 행동. 스트레스와 음주 동기간에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 동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중 이성과의 스트레스($\beta=.05$, $t=.36$, $p=ns$), 장래 스트레스($\beta=-.29$, $t=-1.62$, $p=ns$)와 대처 음주 동기의 이원 상호작용이 음주빈도에 미치는 효과와 이성과의 스트레스($\beta=.16$, $t=1.00$, $p=ns$), 장래 스트레스($\beta=.00$, $t=-.48$, $p=ns$)와 대처 음주 동기의 이원 상호작용이 음주량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빈도에 대하여 이성 스트레스($\beta=-.09$, $t=-.52$, $p=ns$), 친구 스트레스($\beta=-.11$, $t=-.72$, $p=ns$)와 고양 음주 동기의 이원 상호작용의 효과와 음주량에 대하여 이성 스트레스($\beta=.06$, $t=.35$, $p=ns$), 친구 스트레스($\beta=.13$, $t=.82$, $p=ns$)와 고양 음주 동기의 이원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원에 상관없이 대처하기 위한 음주 동기와 고양 음주동기는 음주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적인 모임을 즐겁게 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술을 더 자주 마시고, 더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 자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따른 음주 동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에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 장래, 친구 스트레스군과 사회적 지지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사회적 음주 동기($\beta=.07$, $t=.14$, $p=ns$), 대처 음주동기($\beta=-.05$, $t=-.10$, $p=ns$), 고양

음주 동기($\beta=-.46, t=-.87, p=ns$), 일치 음주 동기($\beta=-.12, t=-.23, p=ns$)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음주 동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 동기는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지지에 상관없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방법으로 음주 동기, 스트레스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4가지 음주 동기가 음주 빈도와 알코올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 음주 동기, 즉, 사회적 음주 동기, 대처 음주 동기, 고양 음주 동기, 일치 음주 동기를 예측 변인으로 하고, 음주 빈도와 알코올 소비량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대처 음주 동기와 일치 음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자주 술을 마시며, 사회적 음주 동기를 가지거나, 고양 음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술을 더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더 많은 술을 마신다는 것을 보였다.

또, 스트레스원과 음주 동기에 따라 음주량과 음주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스트레스보다는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음주 동기가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민규(1993)이 생활 스트레스에 따라서 음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인석 등(2001)이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 동기 중에서 음주 동기가 알

코올 사용과 음주 문제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와는 상관없이, 어떤 음주 동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더 자주 술을 마시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음주 동기, 즉 사회적인 모임을 즐기거나, 더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 술을 자주 마시고, 그 경우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 더 자주 술을 마시지만,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비슷해지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소외되기 싫어서 참여하게 되는 일치 음주 동기의 경우, 더 자주 술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음주 소비량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 동기와 음주량, 음주 빈도 간에 관련성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음주 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음주 동기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음주 동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김용석(2000)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간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대처 동기가 음주 빈도, 음주량, 음주 문제와 관련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스트레스는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그런 영향을 받은 음주 동기가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 관련 스트레스와 장래 문제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성 관련 스트레스와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고양 음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 관련 스트레스와 장래 스트레스는 음주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과의 문제와 장래에 관련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대학생들은 더 자주 술을 마시지만,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상관없이, 음주 동기는 직접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음주 동기와 고양 음주 동기는 음주량과 빈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며, 대처 음주 동기는 음주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음주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김용석(2000)이 대처 동기와 음주 빈도, 음주량의 위계적인 회귀 분석의 결과, 대처 동기가 음주 빈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나, 음주량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스트레스와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을 설명하는 매개 모형을 검증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음주 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음주 행동, 즉 음주량과 빈도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의 경우, 음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음주 동기에 따라서 음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음주 동기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생활 스트레스 중 이성과 장래 관련 문제가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음주 동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동기, 정적인 기분을 고양시키려는 고양 동기가 사회적 지지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음주량과 빈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음주 동기가 가장 유의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음주 행동을 횡수와 실제 음주량으로 측정하지 않고,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한 점에 제한이 있다. 또한 대학생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주 행동을 조절하는 심리적 개입에서 어떤 심리적 요소가 포함될 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음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조사 연구들이, 단순하게 한 시점에서 음주 동기와 알코올 결과 기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들이 매일 가지는 음주 욕구나 음주 동기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음주 행동, 음주 욕구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개인의 음주 욕구와 음주 동기가 스트레스에 의해 어떻게 바뀌며, 그 다음의 음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민,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1991). 한국형 알콜 중독 선 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III)-국립서울정신병원형 알콜 중독선별검사(1). *신경정신의학회지*, 30(3), 569-581.
-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 /음주문제간의 관계-경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Data Mining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2), 75-95.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 동기가 음주문 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유리 (1997). 비행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관한 일 연구-사회 학습 이론 모형과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경무,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 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 한금선, 양승희, 전경무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 한소영 (2002).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bor T. F., De La Fuente J. R., Saunders, J., & Grant M. (1992). *AUDIT-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inegra: World Health Organization.
- Barrera, M. (1986). Distinc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radizza, C. M., Reifman, A., & Barnes, G. M. (1997). Social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predicting alcohol mis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491-499.
- Carney, M. A., Tennen, H., Affleck, H. T., & O'Neil, T. P. (2000). Positive and negative daily events, perceived stress, and alcohol use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788-798.
- Cohen. S., & MaKcy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J. E. Singer, and S. E. Taylor(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vol 4, Hillsdale, NJ: Erlbaum.
- Cohen, S., & S.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Toronto: Academic press.
- Conger, J. J. (1956). Alcoholism: Theory, problem and challenge: II.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 296-305.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2), 123-132.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90-1005.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ritchlow, B. (1986). The powers of John Barleycorn: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an alcohol on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1*, 751-764.
- Duck, S., & R. C. Silver (1990).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eds). 3-103. London: sage.
- Farber, P. D., Khavari, L. A., & Douglass, F. M.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 Gore, S. (1981).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social supports, An Appraisal and Clarification of research Models*, in B. S. Dohrenwend and B. P. Do hrenwned, eds.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xts*. New York. Prodist.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W. D, Gentry(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pp. 282-325). New York: Guilford Press.
- Lepore, S. J., Evans, G. W., & Schneider, M. L. (1991). Dynamic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link between chronic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99-909.
- Levenstein, S., Prantera, C. Varvo., V. Scribano, M., Berto, E., Luzi, C., & Andreoli, A. (1993).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a new tool for psychosomatic research.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7*(1), 19-32.
- Macdonald, G. (1998). Development of a social support scale: an evalu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8*(5), 564-576.
- Pearline., Leonard. L., Elizabeth, G., Menaghan., Morton A. Lieberman., &J. T. Mullan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7-356.
- Guittner, A. L., Glueckauf, R. L., &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6-1278.
- Rook, K. S., & Dooley, D. (1985). Applying social support research: Theoretical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1*(1), 5-28.
- Shinn, M., Lehmann, S., & Wong, N. W. (1984).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55-78.
- Shinn, M., Rosario, H., Morch, DE., & Chestnut (1984). Coping with Job stress and burnout in the human services. *Journal of Personal Social Psychology, 46*, 864-876.
- Stewart, S. H., & Zeitlin, S. B. (1995). Anxiety sensitivity and alcohol use motiv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9*(3), 229-240.
- Thoits, P. A. (1986). Multiple identities;

- examining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59-272.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NY: Praeger.
- Wheaton, B. (1985). Models of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s*, 26, 352-364.
- Will, T. A., & Schiffman, S. (1985). *Coping an Substance Abuse: A conceptual Framework*. In S. Shiffman & T. A. Wills(Eds), *Coping and substance abuse*, Orlando, FL: Academic Press.
- Wills, T. A., & Cleary, S. D. (1996). How Are Social Support Effects Mediated? A Test With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937-952.
- Wilson, G. T. (1988). Alcohol and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369-381.

원고 접수 : 2005년 5월 22일

수정원고 접수 : 2005년 6월 14일

게재 결정 : 2005년 6월 1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3, 277 - 293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ocial support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KyeoungMin, Park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whether some psychological factors have influence on the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perceived stress of college students have influence on the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motives moderated by perceived social support, then they would affect the frequency of drinking and amount of alcohol consume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6 college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lover, future and friend stressors on perceived stressors significantly predicted drinking motives. While coping and conformity motives on the drinking motives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drinking frequency, social and enhancement motives on drinking motives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alcohol-consumpti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stress, drinking motives, drinking behaviors showed that only path from drinking motives to drinking behaviors is significant. Moreover interaction effect between stress and drinking motives and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social support for the drinking behaviors were not found. This results showed that drinking motives was significant factor on drinking frequency and alcohol consumption, and perceived stressors activated specific drinking motive, but social support was not moderator to explain drinking behaviors. More discussions about this study/ limitation and further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words : alcohol, alcohol behaviors, drinking motives, stress, social support.